

동아시아 삼국의 流民圖를 통한 재해 대응

尹元熙*

- | | |
|---------------------|------------------|
| I. 머리말 | IV. 유민도 이후 재해 대응 |
| II. 유민도의 의미와 목적 | V. 맺음말 |
| III. 재해의 충격과 유민도 제작 | |

• 국문초록

16~19세기 동아시아 삼국에서 공통으로 재해, 기근, 병화 등의 중대한 생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流民圖를 제작했다. 동아시아 삼국, 각 시대에 있었던 생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유민도였다. 유민도는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아서 오랜 기간 주목 받지 못한 그림이지만, 재해에 대한 대응과 구휼 과정 등을 유민도를 통해 관찰할 수 있어서 주목해야 할 그림이다. 유민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기능했는데 첫째 목적은 유민들의 참상을 군주에게 보고하고, 감계화처럼 군주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진상되었다. 둘째 목적은 민간에 선전하여 재해의 참상을 알리는 동시에 판매하고 모금함으로써 구휼을 가능케 했다.

유민도의 시작은 송대 정협의 유민도에서 시작되었고, 명·청대와 조선, 일본 에도 시기에 유민도가 제작되었다. 유민도의 특징에서 유사점을 기준으로 명과 조선, 청과 일본 에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명대와 조선 시기에 사대부와 관료들이 유민들의 참상을 유민도로 제작해서 군주인 황제와 왕에게 진상하는 경로가 유사하지만, 각 국의 군주가 유민도를 대하는 태도와 경제·사회 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청대와 일본 에도 시기에 유민들의 참상을 읍이 아닌 민間을 대상으로 알리고 선전하면서, 각계 인사들이 구휼 자금을 기부하도록 독려하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수료

는 목적에서 유민도가 제작된 것이 공통점이다. 그리고 청의 유민도는 민간의 영역이 커진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관의 개입을 바라는 모습이 유민도 속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본 에도 시기에 제작된 유민도에 민간의 모습만 보여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유민도 속의 차이는 각 시대와 국가의 구조와 특징에 따라 재해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달랐음을 입증하고 있다.

주제어 : 유민도(流民圖), 재해(災害), 구휼(救恤), 도간(圖諫), 재분배(再分配), 자선조직(慈善組織)

I. 머리말

17~19세기 동아시아는 小氷期로 평시의 기후와 다르게 기후의 급격한 변동이 생겨서 동아시아 삼국에 공통으로 大飢饉을 겪었다.¹⁾ 조선의 경우 경신대기근(1670~1671년)²⁾과 을병대기근(1695~1699년) 등으로 일반 백성들에서 양반에 이르기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무수했다. 明·清代와 江戸 시대도 대기근이 몇 차례 발생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여 사회 전체에 혼란을 가져왔다. 보통의 기근은 한 지역에서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서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대기근의 경우 대체로 장기 지속적이며 국가 혹은 더 넓은 지역 단위의 기근으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통의 기근보다 대기근의 피해가 막대해서 신분 계층에 상관없이 생존을 위협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큰 충격과 변화를 주었다.

그런데 자연재해 혹은 기후변동에 관한 분석 및 관찰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주는 위기에 인간이 대응하는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 멸망청초 시기에 기근이 지속해서 발생했는데 앞의 왕조인 명 왕조는 멸망하고 청 왕조 초기는 ‘康乾盛世’라고 불리며 대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反淸復明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강남 사회의 반응이다. 김문기의 연구에 의하면 明 말기에 기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강남의 지식인들이 보면서 명조에 등을 돌렸고, 明末의 시대를 ‘後漢 桓帝의 시대’로 비유했다. 반면, 淸 초기 이민족인 만주족에 대해 반감이 심했던 한족 지식인들조차 청 황제가 효과적으로 기근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민족 황제인 청 황제를 ‘堯舜’에 비유하기도 했다.³⁾

자연이 주는 재해와 기후변동⁴⁾, 兵禍 등의 생존위기 앞에 인간이 대응하는 제도가

1) 많은 연구가 중국 왕조교체, 즉 명에서 청으로의 교체의 중요한 배경이 한랭한 기후로 인해 극심한 가뭄 및 재해 등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의 기후변동은 전무후무한 기후변동이었다(이석현, 「중국의 재해, 재난 연구와 '재난인문학'」, 『인문학연구』 5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96면).

2) 경신대기근에 관한 연구는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2008 참조.

3) 김문기, 「明末淸初의 荒政과 王朝交替」, 『중국사연구』 89, 중국사학회, 2014 참조.

4) 자연재해는 水災·旱災·蝗災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재해들이 발생하거나 한

바로 救恤制度이다.⁵⁾ 구휼제도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안정과 지속을 위해 구축한 제도이다.⁶⁾ 구휼제도에 관해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대체로 구휼제도의 일종인 還穀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환곡에 관한 연구 역시 19세기 三政紊亂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는 선행연구가 나온 이래 구휼제도 자체로서가 아닌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쓰인 부세로 보는 경향이 더 강했다.⁷⁾ 최근 환곡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환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휼제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구휼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流民圖’(飢民圖)⁸⁾ 혹은 ‘救恤圖’(賑民圖)를 통해 생존 위기인 재해에 대응한 구휼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⁹⁾ 우선 유민도의 대상인 流民은 災難과 兵禍로 인해 방랑하게 되거나 兵役, 賦稅 등의 수탈로 생존에 위기를 느껴 流離하게 된 이들을 지칭한다. 流民은 종종 토지에서 遊離되어 土農工商

재해가 다른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5) 손병규에 따르면 구휼은 조선 국가재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최상위에서 국가재분배를 주관한다고 하는 왕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이기도 했다(손병규·송양섭, 『통계로 보는 조선 후기 국가경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26면).
- 6) 폴라니에 따르면 봉건제도와 촌락공동체에서 신분에 따른 의무, 씨족연대, 곡물 시장 통제 등이 기근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와카모리 미도리 저, 김영주 역, 『지금 다시, 칼 폴라니』, 생각의 힘, 2017, 54면).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근대 이후의 국가들 역시 기근에 대해 대응하며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기근에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사회의 형태에 상관없이 지속을 위한 제도가 바로 구휼제도이다.
- 7) 환곡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구휼제도로써 조명도 받지만, 그보다 19세기 삼정문란의 하나로 민란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환곡을 본 연구가 더 많았다. 그렇지만 환곡은 비축을 통해 조선왕조 내내 구휼제도로써 역할을 감당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환곡에 관한 선행 연구는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1 참조).
- 8) 流民圖는 明代로 한정해 보면 吳偉·周臣·石磽·楊東明 등이 그린 유민도가 대표적인 유민도이지만, 王一村에 따르면 오위와 주신의 유민도에 ‘유민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자 전통적인 의미의 유민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王一村, 「明代 “流民圖” 考」, 『美術』, 2018, 113~114면 참조).
- 9) 동아시아 삼국 한·중·일에서 그려진 ‘유민도’·‘구휼도’에 관한 연구는 중국이 유민도가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어서 가장 연구가 활발하고, 한국에서는 미술사에서 근현대기 예술사 관점에서 미술사적 혹은 미학적 가치로 중시되지 않다가 미술사학에서 최근에 학위 논문들이 제출되고 있다(고연희, 「조선 왕실 繪畵의 ‘公共性」, 『민족문화연구』 9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 239면; 최원실, 「중국의 流民圖 전통과 近代期 王一新(1867~1938)의 流民圖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9 참조). 그리고 일본의 경우 유민도가 현존함에도 연구는 소수의 논문만 있을 뿐이다.

四民에 속하지 못하는 遊民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遊民 대부분이 유랑생활을 하며 구걸과 기예 등으로 생계를 연명하기 때문에 流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⁰⁾

유민은 본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 방랑했기 때문에, 재해나 兵禍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鰥寡孤獨이나 유민들이 생존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었다. 유민은 賦稅를 내지 않고 兵役·賦役 등의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볼 수도 있었지만, 한·중·일 삼국은 유민과 유민이 될 위기에 놓인 이들을 구휼하고 안정시키고자 했다. 이는 백성을 생존위기에서 구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고 재생산을 도모하는 차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유민들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계심, 혹은 善政을 베풀고자 하는 의도 등의 이유로 인해 유민을 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국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유민을 구하고자 국가와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유민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인 ‘유민도’·‘구휼도’는 민들의 참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의 구휼에 관한 인식과 구휼제도의 모습, 당시 각 국가의 경제구조¹¹⁾ 및 사회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다.

나아가 동아시아 삼국에서 유민도가 공통적으로 그려졌지만, 각 시기와 국가별로 유사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즉, 비교 대상의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각각의 사회·경제·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본고는 유민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사적 관점을 통해 중국의 명·청 시기, 조선, 일본의 에도 시기에 나타난 특징들을 비교함으로써 각 국가와 시기에 따른 특징을 더욱 도출할 것이다.

10) 王一村, 앞의 논문, 113면.

11) 근대 이후 경제의 개념과 달리 본래 경제 개념은 ‘국가 권력 또는 治者 집단이 세상이나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 혹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화된 과정’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經濟’는 ‘經世濟民’을 의미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정책적 차원이 더 강조되었다(손병규·송양섭, 앞의 책, 59면).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삼국을 다루는 본고에서는 근대 산업사회 이후 생긴 경제의 개념보다 경제제민의 ‘경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Ⅱ. 유민도의 의미와 목적

1. 군주에게 바치는 鑑戒畵

유민도의 시작은 뒷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송대의 鄭俠이 그려 시작되었다. 송대 신종 무렵에는 수묵 산수화가 최고로 발달하고 文人畵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유민도는 실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고 유민들이 굶어서 죽거나 죽기 직전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주목받지 못했다.¹²⁾ 즉, 유민도는 제작된 당시에도 유행하는 화풍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을 위해 제작된 그림이다.

그렇다면 유민도는 어떤 목적으로 왜 그렸을까? 그리고 후대인 우리가 유민도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필자는 유민도의 목적과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했다. 첫째, 유민도는 군주에게 바치는 감계화로써 제작되었다. 감계화는 왕실의 구성원들이 감계화를 열람하면서 성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을 이른다. 대표적인 예로 백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無逸圖와 농사를 짓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幽風七月圖, 行實圖, 明君圖·昏君圖 등이 있다.¹³⁾ 이와 마찬가지로 사대부와 관료들이 군주에게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유민도로 보고하면서 동시에 군주 스스로 정사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성찰하게끔 했다. 즉, 사대부·관료들이 왕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유민도를 진상했기 때문에 일종의 감계화인 것이다.

사대부와 관료들의 경우 왕에게 참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글로써 피해 상황을 알리는 것보다 그림으로써 알리고자 했다. 평상시 작은 재해나 기근 때에는 유민도를 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평시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서 참상을 강조하는 유민도를 제작하여 빠른 구휼대책을 군주가 세우길 원했던 것이다.

한편 조선의 유민도는 선조와 숙종대의 기록을 보면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평상시에 豫防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함에도 대비하지 못해서 흉년을 맞은 것이 군주에게는

12) 고연희, 앞의 논문, 239면.

13) 감계화의 기원은 중국 漢의 궁중회화에 이르며 이때부터 궁궐에 감계적 성격의 故事들을 그렸다. 한국의 경우 왕실 감계화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고려 충렬왕 때이다(김영옥, 歷代 帝王의 故事를 그린 조선후기 왕실 鑑戒畵, 『미술사학』,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4, 220~221면).

큰 결함이 될 수 있었다.¹⁴⁾ 유민도를 병풍으로 제작하여 곁에 두고 왕이 계속 봤다는 것은 농사와 세시풍속, 혹은 역대 제왕의 고사를 담은 그림들을 병풍으로 제작한 것처럼 유민도 병풍을 보면서 왕 스스로 자신의 정사를 성찰하고 백성의 삶에 더 관심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왕이 백성의 문제에 관심 있는 애민군주임을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한 행동이다.

2. 募金과 선전 목적의 수단

앞의 목적과 상당히 성격이 다른 목적으로서 유민도는 公益, 즉 구휼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판매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 판매를 위한 유민도가 활용되지만, 목적은 私益을 추구하기보다 公益을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활용되었다.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유민도가 활용되는 경로와 방향도 달라졌다. 圖諫 또는 鑑戒 목적으로 유민도가 활용되었을 때 유민도는 왕실에서 병풍으로 제작되거나 官에서 소장했다. 반면 모금을 위한 목적으로 유민도가 활용될 때는 冊으로 刊印하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시켰다.¹⁵⁾

유민도가 모금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해서 판매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유민들의 참상을 알려서 모금을 독려하고 이미 이뤄진 民間義賑 활동을 宣傳하여 각계 인사들에게 참여하게끔 하고자 했다. 그래서 황제에게 참상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유민도가 제작될 때는 참상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모금과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은 어떻게 민간에서 구휼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휼의 행적을 그림에 넣고자 했다. 이는 구휼에 책임을 맡은 관리들이 구휼을 실제로 하고서 군주에게 바쳤던 유민도(또는 진민도·구휼도)와 매우 유사하다.

혹자는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고 전시할 수 없는 그림인 유민도를 누가 살까’ 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청대 유민도를 보면 그림과 함께 글을 실어 뒀는데 그 글의 내용은 人情에 호소하여 구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글이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추한 그림이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민도의 효과는 지역사회와 다수의 사람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구휼을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¹⁶⁾

14) 『居官要覽』, 「恤民間」, “備荒之道莫如豫防於平常之時”

15) 李冀宁, 「宋, 明, 清至民国时期“流民图”及其历史价值」, 『古今农业』, 2020, 68면 참조.

유민도는 그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구휼에 참여를 권장할 수 있었다.¹⁷⁾ 즉, 문맹인 사람들에게 글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만, 그림은 刑象性和 可讀性을 통해 지배층과 지식인을 넘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¹⁸⁾ 이와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刊印, 즉 발달한 인쇄술에 힘입어 유민도의 영향력이 더 넓은 범위의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민간에서 인쇄술이 발달한 청과 일본 에도 시기에 인쇄술을 활용하여 유민도를 널리 알리고자 刊印했던 것이다.

Ⅲ. 재해의 충격과 유민도 제작

1. 중국

중국의 유민도는 송의 鄭俠이 그린 것이 시초가 되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중국뿐 아니라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협의 유민도는 재해에 관한 실정을 그려 황제에게 上모하는 ‘圖諫’ 목적으로 그려진 유민도의 시초이자 전통이 되었다. 정협이 유민도를 황제에게 바친 시기는 북송의 王安石이 1069년부터 均輸法·青苗法·保甲法·方田均稅法 등의 신법을 제안하여 5년간 시행되고 있는 때였다. 정협은 왕안석이 시행한 신법이 백성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왕안석에게 諫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협은 安上門에서 본 流民들의 처참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황제에게 직접 올렸고,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은 황제 神宗은 왕안석의 신법을 중단시켰다.¹⁹⁾ 신법

16) 李冀寧, 앞의 논문, 68면.

17) 유민도는 그림으로 사건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료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일본의 유민도 같은 경우 사건을 기록한 기록물의 성격을 보이고 메이지 시기에 재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격은 본고에서 잠시 언급에만 그치도록 하겠다.

18) 李冀寧, 앞의 논문, 74면 참조.

19) 중국 고대 은에서 주로 넘어가는 왕조교체기에 災異는 천자가 덕을 잃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견책이며, 천자가 반성해서 덕을 닦으면 재이는 자연히 소멸된다는 사상이 만들어졌다. 송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재이를 정사에 대한 하늘의 견책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이 중단되자 백성들이 기뻐하고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정협은 황제에게 유민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밝혀지면서 왕안석의 新法黨에 의해 투옥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참상에 충격을 받은 황제가 왕안석의 신법을 중단시켰으나 그것도 잠시였을 뿐 장기적인 변화와 결과는 없었다.²⁰⁾

왕안석의 개혁은 송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며 시작되었지만, 당시뿐 아니라 후세에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한 망설임과 비판들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²¹⁾ 혹은 개혁의 시행으로 인한 실패와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하여 민생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정협의 유민도가 그려졌을 것이다. 정협의 유민도가 어떤 이유로 등장했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후 정협의 유민도는 중국뿐 아니라 조선에서 하나의 典範이 되었다.

이후 명대에 많은 유민도가 그려졌지만 정협의 유민도와 같은 유형의 유민도로 볼 수 있는 것은 楊東明의 『飢民圖說』이다.²²⁾ 명대 후기인 1593년 河南 지역에서 큰 홍수가 일어나서 田園이 황무지가 되고 民들이 고통받게 되었다.²³⁾ 하남지역 관리

소멸되었지만, 명청대에 여전히 재이를 天譴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했다(溝口雄三·丸山松幸·池田知久 편저, 김석근·김용천·박규태 역, 『中國思想文化事典』, 민족문화문고, 2003, 326·3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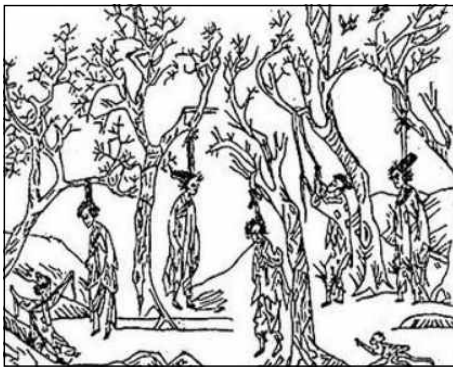
20) 왕안석의 신법은 앞선 개혁인 范仲淹의 소극적인 개혁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왕안석은 청모법을 통해 상평창에서 개인 대출업자들의 이자에 비해 50퍼센트가량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어 일반 백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했다. 나아가 보갑제를 통해 송대에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과다한 국방비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을 군인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혁반대파들은 신법이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를 강화하며 금전거래를 통해 국가가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훗날 주희 역시 “왕안석의 개혁이 역사의 힘이 그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왕안석의 개혁은 道에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디터 쿤 저, 육정임 역, 『하버드 중국사 송-유교 원칙의 시대』, 너머북스, 2015, 108~123면 참조).

21) 그 예로 대동법의 시행이 논의될 때 반대를 주장한 사람들의 반대 근거는 대동법의 내용이 實情과 맞지 않고 규정이 더 상세해야 폐해를 낳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도 있지만, 다수가 기존의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부당함을 이유로 들었다.

22) 앞의 각주 8번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명대의 대표적인 유민도라고 불리는 작품 중에 오위와 주신의 유민도에 ‘유민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유민도에 더 부합하는 楊東明의 『飢民圖說』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3) 元·明은 역사학자들이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이상 기후를 겪은 왕조들이다. 1370년, 1470년 전 세계적인 추위가 닥쳤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 번도 눈이 오지 않던 곳에 눈이 왔다. 그리고

이자 명대의 저명한 학자인 楊東明이 1594년에(萬曆 22년) 직접 듣고 본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매 화폭에 글씨를 써서 설명하고 판화로 새겨서 당시 황제인 萬曆帝에게 바쳤다.²⁴⁾ 이 그림이 바로 명대 대표적인 유민도 중 하나인 『飢民圖說』이다. 『飢民圖說』의 그림을 살펴보면 ‘전 가족이 목을 매서 죽다(全家縊死)’, ‘인육을 굶어먹다(刮食人肉)’, ‘두 살 딸을 죽이다(殺二歲女)’ 등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제목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²⁵⁾



〈그림 1〉 楊東明, ‘全家縊死’, 『飢民圖說』, 1594, 〈그림 2〉 楊東明, ‘餓殍滿路’, 『飢民圖說』, 1594, 木刻本, 20.2×27.5cm, 首都圖書館

〈그림 1〉의 그림 제목은 ‘전 가족이 목매달아 죽다’로 전 일가족이 생존위기 끝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을 의미한다. 홍수로 인한 재해로 먹을 것이 떨어져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일가족이 최후의 선택지로 자살을 선택한 것은 보는 이들을 충격에

명 말기는 1589년과 1590년 두 해를 제외하면 늘 추웠다. 한파뿐 아니라 1544~1546년, 1585~1589년, 1614~1619년 세 번의 혹독한 가뭄을 겪었으며 그중에서도 마지막 가뭄 때 들판이 바짝 말라버린 상황을 『明史』에서는 1615년의 들판이 타들어 가는 듯했다고 묘사했다. 이외에도 명 말기에는 큰 홍수가 잇달아 발생했다(티모시 브룩 저, 조영현 역, 『하버드중국사 元·明·곤경에 빠진 제국』, 너머북스, 2014, 112~143면 참조).

24) 재해 예방과 재해민 구제는 중국 관료의 전통적인 임무였다. P.E. 빌은 이와 같은 재해대책에 대해 ‘백성을 더 잘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먹여야 한다’는, 유교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te)의 개념과 부합된다고 평가했다(P.E. 빌 저, 정철웅 역, 『18세기 중국의 관료제도와 자연재해』, 민음사, 1995, 20면).

25) 최원실, 앞의 논문 참조.

빠뜨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매달려 있는 시체들 옆에 한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하고 있다. 한꺼번에 죽은 가족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죽고자 목을 매달려는 사람을 그림으로써 현재 상황이 時急한 상황이며 빠른 조치를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²⁶⁾ 또는 굶주림과 죽음이라는 선택 앞에서 망설여서 아직 죽지 못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서 황제와 중앙정부의 빠른 개입을 촉구할 수 있다.

〈그림 2〉는 길 위에서 굶어 죽은 시체를 보여주고 있다. ‘길’이라는 공간에서 사람이 굶어 죽은 것은 客死를 보여주면서 유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습하지 않은 시체를 보여줘서 백성들의 죽음이 끊임없이 연속되고 있으며, 죽지 않은 사람들도 수습할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시체뿐 아니라 시체 주변에 까마귀를 보여줌으로써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처참한 그림들을 본 황제는 정협(鄭協)의 유민도를 받은 송나라의 신종과 마찬가지로 하남지역의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게 되었다. 황제는 구중궁궐에서 지내고 넓은 영토 안의 각 지역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서 사대부이자 관리인 양동명이 그려 올린 유민도가 지역의 피해를 소상히 알게끔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동명의 『飢民圖說』은 圖諫의 목적으로 그린 ‘정협(鄭協)의 유민도’의 계보를 잇는 그림으로 평가될 수 있다. 圖諫 목적의 유민도는 사대부 계층이 유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황제와 정부가 救荒에 있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고발하는 측면도 있다.²⁷⁾

명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차지한 이민족 왕조 淸代에도 유민도가 그려졌다. 그런데 청대에 그려진 유민도는 명대에 황제에게 호소하여 민의 참상을 돌아보게 하던 것과 달리, 주로 각 계층 인사들에게 모금이나 선행을 권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청대의 유민도는 민간에 義賑을 선전하는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해 후의 참상을 알리는 수단으로써 刊印되고 넓은 지역으로 보내졌다.²⁸⁾ 즉, 유민도

26)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행정은 일차적으로 지방 관리들이 省 정부에 보고하고, 성 정부는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다(P.E.빌 저, 앞의 책, 113면 참조). 관료제의 특성상 여러 절차가 있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고,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지체되어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

27) 王一村, 앞의 논문, 114~115면.

28) 李冀宁, 앞의 논문, 68면.

가 청대에는 이전과 다른 주체와 목적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청대에 그려진 유민도는 철 같은 사람도 (그림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로 ‘鐵淚圖’라고 불렸다. 철루도 중에서 1850~1860년대에 활동한 자선가인 餘治가 1864년에 그린 『江南鐵淚圖』는 1850년에 발발한 태평천국의 난으로 도탄에 빠진 강남 지역의 난민 모습이 담겨 있다.²⁹⁾ 이전의 유민도가 주로 자연재해로 인해 작성되었다면, 『江南鐵淚圖』는 人災인 태평천국의 난이 유민도 제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9세기 청은 특히 태평천국의 난 이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구휼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여치의 『江南鐵淚圖』는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는 좋은 예의 그림이다. 여치는 철루도를 제작한 목적에 대해 강남의 難民들을 구제하는 것을 권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³⁰⁾ 그리고 이미 보고 들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와 마음이 움직였는데도 힘껏 구제하지 않는 경우 모두 人情이 아니라고 하며 함께 구제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³¹⁾ 즉, 철루도를 통해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여 기부를 권장한 것이다.

『江南鐵淚圖』의 내용은 명대에 그려진 『飢民圖說』처럼 태평천국 이후 피폐해진 강남 지역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서 이전의 그림과 유사하지만, 청대의 유민도가 명대에 그려진 유민도와 다른 점은 조정의 도움으로 귀향해 삶의 안정을 되찾는 난민(유민)을 보여주고 다시 찾아온 태평성대를 축하하는 장면들이다. 즉, 사대부나 관리들이 ‘圖諫’ 목적으로 그린 유민도가 아니고, 민간자선가가 모금하고자 유민도(철루도)를 제작했음에도 여전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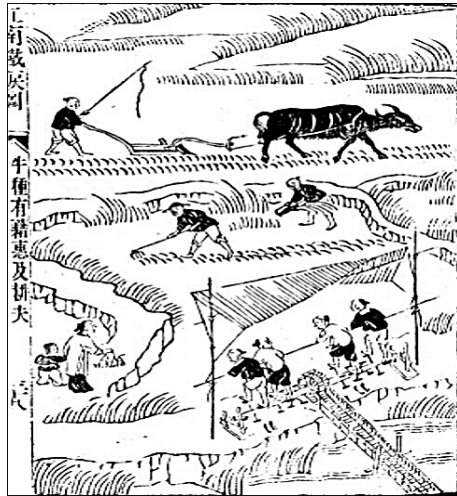
29) 余治가 1849년 강남지역에 홍수가 나고 재해 구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린 『水淹鐵淚圖』와 여치의 제자인 謝家福이 ‘丁戊奇荒’ 이후 모금을 모으기 위해 그린 『河南奇荒鐵淚圖』 등 19세기에 구제 경비를 모으기 위해 다수의 철루도들이 제작되었다(李冀寧, 앞의 논문, 68면).

30) 寄雲山人 撰, 『江南鐵淚圖』, 廣文書局, 1974, 88면, “寄雲山人爲勸濟江南難民作.”

31) 寄雲山人 撰, 앞의 책, 89면, “既見之聞之, 而不動心者, 非人情也, 既動心, 而不能出力拯救者, 亦非人情也.”



〈그림 3〉 奇雲山人, ‘舊從遭散各返家鄉’,
『江南鐵淚圖』, 1864



〈그림 4〉 奇雲山人, ‘牛種有備惠及耕夫’,
『江南鐵淚圖』, 1864

〈그림 3〉을 보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장수가 철루도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누구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관대하고 인자한’ 장수가 자애로운 모습으로 반란을 일으킨 자 중에 잘못을 뉘우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림이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태평천국을 주도적으로 진압한 장수 중 하나인 曾國藩은 반란을 진압하면서 하나의 도시 사람들을 학살할 정도로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속 모습은 실제의 역사와 다르지만 철루도를 제작한 이들은 태평천국을 진압한 장수를 비롯한 정부의 관리들에게 태평천국을 진압한 역할 뿐 아니라 다시 백성들을 안정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림 4〉는 〈그림 3〉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해 유민들이 발생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논밭은 황폐해졌다. 농업의 문제는 개인·사회·국가 모두의 문제가 되고,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 농업 재생산 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중대한 문제였다. 민간에서 제작한 철루도에 上憲인 정부의 관리가 소·農具·穀種 등을 지원하여 권농한 것을 그린 것이다.³²⁾ 이는 정부의 과거 업적을 칭찬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災害가 미래에 발생할 때 정부의

32) 寄雲山人 撰, 앞의 책, 76면, “上憲垂情及此給賞補助設局勸農”

개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 달리 주지하다시피 태평 천국의 난 이후 청조에 태평성대는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청조와 민간 모두 이전보다 더 쇠락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

중국은 송대 정협(正協)의 유민도를 시작으로 명대와 청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940년 대까지도 유민도의 전통은 지속되었다.³³⁾ 송대에서 명대까지는 圖諫의 전통에 따라 사대부와 관료들이 황제에게 참상을 그려 올렸고, 청대 이후에는 민간 자선가들이 많은 사람에게 참상을 알리고 구호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유민도를 제작했다. 청대에 유민도를 제작하는 주체와 목적이 바뀌었음에도 이전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것이 다음 장에서 다룰 일본 에도 시기와 유사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2. 일본

본고에서는 일본 에도 시기의 유민도인 『荒歲流民救恤圖』를 중심으로 일본의 유민도와 구휼제도를 다루고자 한다.³⁴⁾ 일본의 유민도는 중국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삼국 중에 가장 독특한 형태이다. 구휼도인 『荒歲流民救恤圖』는 群馬縣 土族인 후쿠가마 요시타가(福鎌芳隆)가 쓴 『荒歲流民救恤圖序』와 그림에 첨부된 『荒歲流民救恤

33) 1943년 蔣兆和가 ‘流民圖’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남경대학살 이후 유민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그린 그림이 대표적이다.

34) 본고에서 소개하는 『荒歲流民救恤圖』 외에 建部南庵이 지은 『民間備荒錄』과 메이지 16년 화가단체인 同好社에서 함께 제작한 『凶荒圖錄』에도 일본 에도 시기에 유민에 대해 그린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다. 우선 『民間備荒錄』은 一閔蕃의 의사인 저자는 당시 蕃内の 領民들은 굶어 죽지 않았지만, 기근으로 인해 몰려온 타 지역의 사람(유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의술로 영내 생존위기에 빠졌던 사람들을 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근에 대한 대비 및 기근 시 초목을 바르게 먹는 방법 등을 이 저서에 썼다. 그리고 이 저서를 번의 家老가 보고 널리 간행하도록 하여 이후 救荒書들의 모범이 되었다. 다음으로 『凶荒圖錄』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나타난 기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구황서이다. 이 두 권의 저서에 기근 때 처참한 유민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荒歲流民救恤圖』와 같은 유민도와 달리 구황서인 『民間備荒錄』과 메이지 시대에 과거의 기근에 대해 묘사한 『凶荒圖錄』은 유민도와 기본 성격이 다른 것을 판단되어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民間備荒錄』과 『凶荒圖錄』은 에도 시기의 유민의 참상과 구휼의 양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임은 틀림없다.

圖并略記』에 나와 있다. 그림의 배경은 天保 7년인 1836년 여름에 홍수로 인해 米價가 급격히 상승하고, 겨울에는 飢餓과 더불어 악성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도로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이던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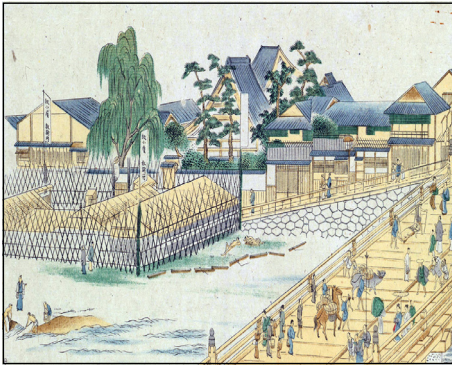
이때 田原藩의 家老인 와타나베 카잔(渡辺崋山)이 교토에 체재하면서 동지들을 모아 三条橋 남쪽 강변에 ‘救小屋’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짓고, 유민들을 수용하여 죽을 먹이고 약을 나눠줬다. 구휼의 가장 기본인 施粥과 施藥은 영양상태가 나빠진 환자들에게 밥이 아닌 죽을 먹이고, 영양실조 상태로 면역력이 약해져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약을 먹여 살리는 행위이다. 기간은 天保 8년인 1837년 정월부터 天保 9년 1838년 3월까지 구휼을 했다.³⁵⁾ 죽과 약에 들어가는 기금은 교토의 마을 유지들이 私財를 투입해서 마련한 것이었다.³⁶⁾

그림을 보면 무사 계급으로 보이는 이들과 승려 등이 구휼과 장례 등을 행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림 속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구휼에 참여하는 관리들은 찾아볼 수 없다. 官보다 무사계급의 사람과 승려들이 ‘인자한’ 모습으로 구휼에 손수 참여하는 그림은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와 곤궁에 처한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줘 지역사회와 신분제 안정을 꾀했을 것이다. 물론 자선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관료가 있을 수 있으나, 관료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민간 자선조직의 일원으로서 참여했을 것이다. 민간 자선조직을 중심으로 1년 3개월에 걸쳐 구휼하고자 했지만, 구휼 대상자 1,480명 중에서 974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승려들이 사망자를 배웅하며 7개의 절에 나눠 묻어줬다.³⁷⁾

35) 菊池勇夫는 와타나베 카잔이 天保 7-8년 기근 때 에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교토에서의 구휼활동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菊池勇夫, 「荒歲流民救恤圖」, 『予防時報』 236, 2009).

36) 菊池勇夫, 앞의 논문 참조.

37) 일본 에도 막부는 가톨릭 반란군이 일으킨 시마바라 봉기 이후 모든 국민을 사찰에 소속시키는 ‘슈몬 아라타메(宗門改め)’를 실시했다. 이후 승려들은 제도적으로 장례를 집행하게 되었다(김시덕,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메디치, 2015, 223~224면).



〈그림 5〉 “救小屋을 짓고 구휼을 시작하다”



〈그림 6〉 “유민들을 수용하여 구휼하다”



〈그림 7〉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나눠준다”



〈그림 8〉 “승려들이 시신들을 수습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위의 유민도 배경인 天保 대기근을 비롯해 天明 대기근 등 수차례의 기근이 발생했다. 天明 대기근은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지만³⁸⁾, 天保 대기근은 중소규모의 정점이 장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天保 대기근 당시를 ‘天災의 天保’라고 부르듯이, 에도 막부 시기 중에 가뭄과 풍수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시기가 바로 天保 대기근 시기였다.³⁹⁾

38) 天明 대기근을 살펴보면 1783년 郡馬縣과 長野縣의 경계에 있는 淺間山の 대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인해 농작물이 말라 죽고,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기온을 낮춰 더 큰 피해가 생겼다(渡辺 尚志, 「飢饉は天災だけで起こるのか」, 『日本の歴史を解く100話 : 読めば歴史観が変わる』, 文英堂, 1994, 290면).

天保 대기근 시기에 사원 과거장에 따르면 1831~1840년의 총사망 1256건 가운데 아사가 8%를 차지해 여타 시기보다 비중이 높았다. 한편 해변 지역 15개 촌은 아사는 없고 사망자의 58%가 급성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굶어 죽은 사망자 수도 많았지만, 천연두·홍역·풍진·장티푸스 등의 유행병이 기근 이외 일상 시기보다 많이 발생하여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났다.⁴⁰⁾ 기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식량의 위기로 인해 굶어 죽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형편없는 영양 상태로 인해 전염병의 유행이 극심해지면서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天保 대기근의 원인은 자연재해에만 있지 않고 사회구조와 경제 상황으로 인한 人災이기도 했다. 일본 에도막부는 쇼군이 정치를 총괄하면서도 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에게 있었다. 즉, 전국의 영토는 쇼군의 직할령인 막부령(幕府領)·다이묘령(大名領)·하타모토령(旗本領)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중의 다이묘들이 기근 때에 각 번에서 餓死者를 내지 않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藩·지역에 대체로 무관심했다. 기근이 들어도 다른 다이묘가 다스리는 지역에 미곡을 반출하기를 꺼렸고, 쌀이 반출되는 것을 경계하며 지키기까지 했다. 따라서 기근의 극복은 요원해지고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⁴¹⁾

에도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상품경제의 급속한 발달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상품경제의 발달은 지역에 따라 피해가 될 수 있고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예로 天保 대기근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山梨縣 지역의 百姓一揆을 보면 농업 생산력이 낮아 농민들이 굶어서 봉기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견직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가던 이들이 식량의 값이 치솟고 견직물의 값은 내려가서 생존 위협을 느껴 잇기를 일으킨 것이었다.⁴²⁾ 상품경제의 발달과 기근과의 관계를 보면 기근이 발생하면 상인들이 나서서 구휼에 힘을 보태기도 했지만, 때로는 상품경제의 발달이 기근의 피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 유민도의 제작은 여타 시기보다 더 큰 자연재해·기근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 등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모금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막부 정부뿐

39) 桑原洋子, 『前近代における社会福祉法制』, 信山社, 2014, 218면 참조.

40) 키토 히로시 저, 최혜주·손병규 역, 『인구로 읽는 일본사』, 어문학사, 2009, 181~183면.

41) 渡辺 尚志, 앞의 책, 290면 참조.

42) 渡辺 尚志, 앞의 책, 290~291면 참조.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구휼을 행해야 했다. 일본 에도 대의 유민도는 중국의 청대에 제작된 유민도의 예에서 보듯이 제작될 당시에 재해가 지속되거나 이후에 생길 재해에 대비하는 구휼자금을 모을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막부 정부의 지원과 재정이 없지 않았겠지만, 대체로 이 시기의 구휼에 대한 재정은 민간 혹은 마을 유지 등이 지원했다.

3. 조선

중국과 일본의 유민도가 현재까지 많이 보존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민도 그림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록으로만 유민도의 實存을 알 수 있다. 기록을 통해 조선에서 제작된 유민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실제로 백성들의 참상을 목격한 지역의 양반과 관료들이 정협의 유민도 전통을 따라 유민도를 그려서 왕에게 참상을 알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앞의 경우와 동일한 주체들이 백성들의 비참함을 글로써 묘사해 왕에게 올리는 경우이다. 후자도 ‘정협의 유민도 전통’을 따랐다고 언급하면서 글을 왕에게 올렸다.

우선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져 올려진 유민도에 관한 기록은 연산군, 선조, 숙종 대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기록인 연산군 대의 기록은 연산군 8년인 1502년 진사 이난손이 백성들이 가난 때문에 錢穀을 借代하고 굶주림과 추위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모습과 관리들이 백성들에 대해 苛斂誅求하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 올렸고 이 그림을 ‘安民圖’라고 불렀다.

이난손은 안민도를 그려 올리는 이유에 대해 『書經』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구절을 인용하고, 구절의 실천을 위해 정협의 유민도처럼 유민도를 왕에게 올려서 백성들의 목숨을 보전코자 했다고 말했다.⁴³⁾ 이 기록에서 조선에서 유민도를 그려 올리는 것은 조선의 양반·관료들이 ‘송대 정협이 유민도를 신종에게 올린 고사’를 본받고자 그려지고 진상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록은 조선의 14대 왕 宣祖가 화공에게 유민도를 베껴 그려서 10첩의 병풍⁴⁴⁾으로 만들 것을 명령했고, 이후백에게 폭마다 시를 지어 올리라고 한 기록이

43) 『燕山君日記』 46권, 연산 8년(1502년) 10월 28일 정묘 3번째 기사.

44) 조선에서 유민도 제작에서 다른 국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왕이 유민도가 올려졌을 때 그 유민도를

다.⁴⁵⁾ 이후 壬辰倭亂 직후인 선조 26년(1593년) 유민도를 그려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림에 죽은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 자식을 버려 나무뿌리에 묶어 놓은 어미, 마른 해골을 씹어먹는 자, 심지어 남의 하인이 되기를 구걸하는 士族을 그려 당시의 처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⁴⁶⁾ 그러나 유민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구휼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만 왕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경계로 삼아 병풍으로만 제작하는 것에 그쳤다.

다음 기록은 약 90년 후인 숙종 14년(1688년)에 고성 의 진사인 신무가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保民篇』이라는 책자와 함께 『保民圖』를 그려 올렸다.⁴⁷⁾ 신무의 보민도는 현존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성호 이익의 기록에 “양서 고을로 가는 길목에서 날마다 어부, 농부, 사공, 마부, 짐을 메고 진 자, 아이를 안고 노인을 부축하고 가는 자들을 보았는데, 노래하거나 곡하기도 하면서 오가는 행렬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⁴⁸⁾라고 했다. 즉, 신무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수많은 사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민의 행렬을 보고 그린 것으로 보인다. 신무는 숙종에게 『보민편』·『보민도』를 올리면서 安上門의 고사, 즉 안상문의 감문인 정협이 유민도를 올리는 고사를 본받아 유민도를 바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민도를 올렸음에도 변화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보고 왕이 내리고자 하는 보상조차 사양했다.

병풍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보통 미적으로 우수한 그림들, 혹은 경계를 삼기 위해 농사나 세시풍속을 다룬 그림들이 병풍으로 제작된다. 반면 유민도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군주의 잘못을 꾸짖어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 면에서 조선의 왕은 유민도가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더욱 경계로 삼고자 병풍으로 제작했을 것이다.

45) 『宋子大全』 206권, 「靑蓮李公行狀」 “壬申春年饑, 上命畫工寫流民圖, 作屏十帖, 又命公逐帖賦詩以進, 以寓觀省焉.”

46) 『宣祖實錄』 38권, 선조 26년(1593년) 5월 9일 임술 3번째 기사 “時, 人有上流民圖者, 有母死而兒含乳者, 有創傷僵臥者, 有士女丐乞者, 有母棄兒縛木根者, 有不能言以手指口者, 有採葉充腸者, 有士族乞爲人奴僕者, 有啖爵枯骨者, 有父子同臥者, 有母負貌蹣跚者.”

47) 『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1687년) 12월 30일 갑술 1번째기사 “高城進士愼懋應旨上疏, 大要以行仁政爲主, 仍進冊子, 名曰保民篇. 其綱三, 其目三十五, 又作圖附之於下曰, 修德者得人之本, 得人之保民之本, 故先言君德, 次言人才, 次言保民, 而合於一圖.”

48) 『星湖全集』 68권, 「晩湖愼先生傳」 “地近江臨兩西官道, 日見漁者農者舟者馬者, 擔負者抱扶者, 或歌或哭, 來來去去, 晝夜不絕, 問之或曰公也或曰私也, 或曰歲饑不能保妻子, 或曰公稅未給私貸亦督, 或曰役東赴西, 朝夕不能息.”

그런데 숙종 32년(1706년) 이후로 변화가 생겼다. 당시 關東 지역에 크게 기근이 들어 왕명으로 파견된 監賑御史 오명준이 진휼을 감독하고 돌아오면서 ‘賑民圖’를 바쳤다. 이 그림에는 곡식을 운반해 진휼하는 모습, 굶주린 백성이 엎드려 영금영금 기면서 진휼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참혹한 모습, 사나운 관리가 田稅를 독촉하는 모습 등을 그렸다.⁴⁹⁾ 이전의 유민도가 백성의 참혹함을 그려 구휼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끔 촉구했다면, 오명준의 유민도는 재해로 참혹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왕의 명령대로 진휼한 모습을 그려 왕에게 진상한 것이었다.⁵⁰⁾

혹자는 ‘그대의 그림은 진실로 아름답지만 정협의 유민도와는 뜻이 다르다’며 오명준을 비판하기도 했다.⁵¹⁾ 오명준이 정협과 달리 참혹함만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휼을 잘 시행하는 모습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그렸다고 판단하여 혹자가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비판은 있었지만, 오명준이 그려 올린 유민도 역시 재해로 인한 백성들의 참상을 왕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전의 유민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명준의 유민도 이후 영조 대에 어사 沈聖希가 飢民圖와 미역과 전복을 따는 그림을 올렸다는 기록은 있지만, 영조가 잠깐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다.⁵²⁾ 이처럼 한국에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볼 수 있는 유민도는 없지만, 기록 속에서 유민도를 그려 왕에게 올렸다는 기록을 통해 유민도가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실제로 유민도가 그려지지 않았지만 기록 속에 유민도가 언급된 경우를 유형과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밑의 표로 정리했다.

49) 『承政院日記』 영조 2년(1726년) 2월 7일, “先朝嶺東監賑御史所陳飢民圖御製詩, 得覽本圖, 其爲飢民之顛連匍匐而就賑救者, 慘不忍見, 而至於悍吏之催督田稅之狀, 尤極慘惻而痛駭矣.”

50) 이에 대해 고연희는 ‘유민도’의 방식을 사용하되 본래의 목적에 빗겨 갔던 “類似·流民圖”라고 평가했다(고연희, 앞의 논문, 243면).

51) 『肅宗實錄』 43권, 숙종 32년(1706년) 6월 17일 계묘 1번째 기사 “江原道監賑御史吳命峻復命, 進賑民圖. 時, 關東大饑, 命峻承命監賑, 及歸作此圖以獻, 而所畫者, 皆運粟分賑之事, 及流民還集, 老羸攢祝之狀, 或謂命峻曰君之畫誠美矣, 殆與鄭俠流民圖異意.”

52) 『備邊司謄錄』 54책, 영조 46년(1770년) 11월 4일 “島民執手相告說, 非比頃年御史沈聖希陳飢民圖與採藿·鰓圖.”

〈표 1〉 조선 기록 속의 유민도 유형

유형	본문
1. 백성의 참혹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요즘 정사가 편의를 잃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恒産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부역이 수월한 자는 겨우 보존해 있고 고달픈 자는 떠돌게 됩니다. 이리하여 族隣에게까지 침해가 미치고 점점 해독이 만연되어 한 사람이 役을 도피하면 온 마을이 텅 비게 되는데 (중략) 그런데 어찌 監門 鄭俠의 流民圖만이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겠습니까? 신은 매번 이웃 마을에 밥 짓는 연기가 끊긴 지 오래인데도 관리들의 잇따른 호통 소리를 들을 적마다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여 방황하면서 크게 한숨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3)
2. 왕에게 백성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이가 없음을 탄식할 때	지금 사방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데다가 征斂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유민도가 올라가지 않고 烏昧草가 바쳐지지 않으니, 애처로운 우리 백성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소외되어도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즐겁지 못한 법인데,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만 차마 혼자 먹으면서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54)

조선의 양반·관료들에게 정협이 신종에게 진상한 유민도는 백성의 참혹함을 황제에게 일깨워 준 본보기로써 자주 인용되었다. 조선은 명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직접 경험한 양반·관료들은 궁궐에 있어 참상을 직접 볼 수 없는 조선의 왕에게 유민도를 언급함으로써 좀 더 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물론 조선의 왕은 중국의 황제보다 순행 혹은 직소를 통해 백성을 대면하고 백성의 하소연을 듣고자 했지만, 이는 중국의 황제에 비해 자유로울 뿐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하소연하는 길은 대체로 막혀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은 양반·관료들이 주변에서 왕에게 백성의 참혹함을 아뢰는 이가 없음에 대해 탄식한 것이다. 물론 탄식하는 이들의 말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53) 『宣祖修正實錄』 15권, 선조 14년(1581년) 4월 1일 갑오 2번째 기사 “近緣政失便宜, 民無恒産, 歇者僅存; 苦者流離, 侵及族隣, 輾轉蔓毒, 一人逃役, 閭里盡空, 根本日傷, 元氣日耗, 有不勝其憂者矣. 差科之下, 逮捕之際, 驅催程督, 愈深愈酷, 遍及於深山窮谷之中. 哀我赤子, 憔悴於窮餓之火, 愁冤痛苦, 有不忍言. 豈但監門鄭俠之圖, 爲可流涕而已哉. 臣每聞, 比隣炬火久絕, 追呼旁午, 未嘗不蹙然動心, 而彷徨太息也.”

54) 『宋子大全』 7권, 「辭食物疏」 壬辰 十一月十三日 “今者四隣啼飢, 復困征斂, 安上之圖不上, 烏昧之草莫進, 哀我民斯, 孔棘且殆, 一夫向隅, 滿堂不樂, 矧爾滿堂向隅, 一夫其忍獨食而下咽乎.”

양반과 관료도 있었지만, 적지않은 양반과 관료는 왕에게 上疏 혹은 유민도라는 방법으로 백성의 참혹함을 알림으로써 백성의 생존을 지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를 온전하게 하고자 했다.

IV. 유민도 제작 이후 재해 대응

유민도는 종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제작되지 않는 그림이다. 비일상적인 상황, 즉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 지속적 기근, 전쟁 등으로 유민들이 발생하고 많은 수의 사람이 생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된 그림인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동아시아 삼국에서 공통으로 극심한 재해 상황을 겪으면서 유민도는 제작되었다. 그리고 유민도가 제작되고 각 국가와 시대에 따라 대응하는 주체와 양상이 달랐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명과 조선, 청과 에도가 유사하다. 이 장에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官-지배층 주도의 구휼

중국의 송대 ‘정협 유민도’ 전통에 따라 명대 양동명이 하남지역의 참상을 그림으로 옮긴 『기민도설』을 황제에게 바쳤고, 그제야 황제는 하남지역의 참상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飢民들의 반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황제는 즉시 鍾化民을 河南道 監察御史로 삼고 은 8만 냥을 보내어 賑濟 즉 구휼을 하도록 했으며, 그 해의 田租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⁵⁵⁾

하남에 파견된 종화민이 죽을 나뉘죽으로써 아사 직전의 사람들을 살리고 醫藥을 나뉘줘서 전염병 치료에 힘썼다. 나아가 農桑 등을 권장하여 재해에 대비하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구휼에 힘썼다.⁵⁶⁾ 流民·飢民들의 처참한 모습을 그림에 담은 유민도

55) 『神宗顯皇帝實錄』 卷二百七十, 萬曆二十二年(1594年) 二月 十五日 3번째 기사 “先是, 河南大雨, 五穀不升, 給事中楊東明繪饑民圖以進, 上覽之, 驚惶憂懼, 傳諭閣臣, 至是, 從部議蠲該歲田租, 并發銀八萬兩, 令光祿寺丞鍾化民, 兼河南道御史, 前往賑濟. 其山東江北, 災傷重處, 分賑停徵有差.”

56) 『神宗顯皇帝實錄』 卷二百七十七, 萬曆二十二年(1594年) 九月 五日 1번째 기사 “多開粥廠以活,

가 황제에게 올려짐으로써 그전까지 심각성을 몰랐던 황제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생존위기에 처한 민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 종화민은 진흙을 마치고 수도로 돌아와 復命할 때 하남지역에서 진흙한 주요 과정을 18폭으로 그려 제작한 『救荒圖說』을 조정에 바쳤다.⁵⁷⁾ 종화민이 진흙한 과정을 그려 올린 『구황도설』은 조선의 오명준이 강원지역에 진흙한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바친 賑民圖와 매우 유사하다.

다음으로 조선은 숙종 대에 제작된 오명준의 진민도 이후에 생긴 변화가 유민도의 전통과 효과에 더욱 부합했다. 오명준의 진민도는 제작된 당대보다 숙종의 뒤를 이은 영조 대에 이르러 실제 구휼 정책으로 이어졌다. 영조는 오명준의 진민도와 이 그림에 붙인 숙종의 御製詩⁵⁸⁾를 자주 언급하면서, 재해·기근과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생활고에 빠진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환곡과 신포 등을 탕감하고 수령들에게 진휼에 힘쓸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⁵⁹⁾

이와 같은 변화는 애민군주를 표방했던 영조가 백성들의 생존에 관심을 갖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구휼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7세기 이후 소빙기 기후, 기근 및 전염병의 창궐 등의 결과인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으로 고위 양반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계층에 상관없이 餓死하고 죽음 직전에 가는 ‘절대적’ 위기⁶⁰⁾를 경험하면서 왕을 비롯한 지배층들이 구휼에 절실함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중국의 명대와 조선은 살펴봤듯이 절대권력자인 황제와 왕에게 유민도를

將亡之命，審別貧戶以賑窘迫之人，大荒之後，必有大疫，則施醫藥以療之，流移之民欲歸無賴，則分錢粟以給之，妻妾子女之賤賣他人者，官為收贖以全其天性，田疇丘壠之荒蕪拋棄者，官給牛種以助其耕耘，復思救荒於已然，不若備荒於未然，行各州縣勸務農桑課勤紡績。”

57) 李冀寧, 앞의 글, 6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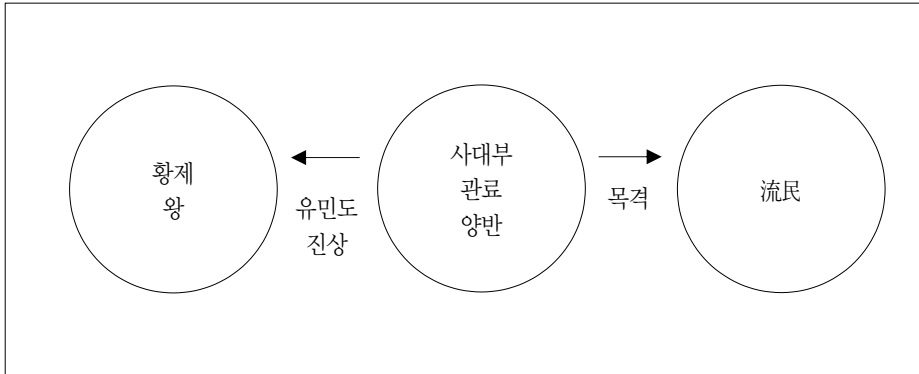
58) 『列聖御製』, 卷11, 「題江原道監賑御史吳命峻所進嶺東飢民圖」, “活我東民賑事止, 歸來闕下惠障子. 憂國愛君同古人, 揭圖殿壁代山水.”

59) 『承政院日記』 영조 2년(1726년) 2월 7일.

60) 『顯宗改修實錄』 25권, 현종 12년(1671년) 12월 5일 임오 2번째 기사 “國家不幸, 運值陽九, 水旱災沴, 年比不登, 而飢饉死亡之慘, 至于上年而極矣. 重之以瘟疫大行, 彼持瓢丐乞, 仰哺糲所之類, 則停賑之後, 死亡無餘, 而土著農民之死於飢饉瘟疫者, 合一國計之, 則其數幾至百萬. 甚至一村盡死者, 比比有之, 雖壬癸兵火之酷, 殆不過是也. 民之死亡若此, 而守令則乃反謂之善賑, 而或授以金玉之資, 或加以璽書之褒.”

진상함으로써 구휼정책을 세우도록 촉구했다. 유민도를 통해 본 중국의 명대·조선의 사회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표 2〉 명·조선의 유민도와 사회구조



명과 조선은 살펴봤듯이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명부터 살펴보면 중국의 절대권력인 황제가 민과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순행은 조선에 비한다면 횡수가 적고 황제가 행차할 때 민들이 직접 구경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민이 자신의 문제를 황제에게 호소하는 ‘直訴’는 거의 장식적인 역할에 그쳤고 행차시의 직소에 대해 황제들이 달가워하지 않았다.⁶¹⁾

황제가 백성과의 거리가 먼 만큼, 사대부·관료들은 황제의 눈과 귀가 되는 동시에 민의 입이 되어야 했다.⁶²⁾ 즉, 황제와 민 사이에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

61) 배항섭, 「백성이 호소하고 국왕이 들어준다-근세 동아시아의 정치문화와 직소」,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 너머북스, 2017, 47~55면 참조.

62) 송대에 과거제도의 실시, 특히 황제가 시험관이 되어 실시하는 殿試의 신설을 통해 황제와 관료는 사제관계로 맺어지게 되고 황제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미야지마 히로시, 『한중일 비교 통사』, 너머북스, 2020, 190~191면 참조). 한편 과거를 통해 선발된 관료들은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돕는다’라는 뜻인 經世濟民을 실천하고자 모든 자원을 동원해 백성이 쇠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들의 소임이라고 이해했다. 이에 대해 티모시 브룩은 명대 중기부터 표면화된 유학의 행동주의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봤다(티모시 브룩, 앞의 책, 246~247면). 그리고 지방의 지식인들인 사대부들 역시 재해 등으로 인해 왕조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호소하거나, 실제로 지역에서 구휼·구휼 활동에 앞장서기도 했다(김문기, 「17세기 江南의 災害와 救荒論」, 『역사와 경계』 73, 부산경남사학회, 2009

민의 참상을 보고하는 중간자 역할을 담당해야 민의 어려움이 전달될 수 있었고 나아가 사회·국가의 파탄을 막을 수 있었다. 사대부·관료들이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생존의 위기에 처한 유민들에 대해 상소를 올리거나 화폭에 옮긴 ‘유민도’로써 황제에게 진상했던 것이다. 글로 올려진 상소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시각적으로 유민들의 참상을 보여준 유민도의 힘은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당시 명은 건국 초기부터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로 생산과 무역을 활성화했고, 이를 통한 수익은 유교의 호혜 원칙을 통해 황제·관료들은 백성들의 생계를 위해 활용되었다. 물론 당시 송대부터 발전한 상업의 발달로 민간 경제가 커지면서 정부는 민간의 부자들과 상인들에게 구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⁶³⁾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생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민간에 있지 않고 국가 권력의 정점인 황제에게 있었다. 관료들도 백성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백성들의 생존 문제를 황제에게 알려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명말 무렵에는 백성들의 실제 삶에 대해 지배층들이 대체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식인들까지 명 왕조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한편 조선은 명대와 유사하면서 차이점을 보인다. 유사점은 조선 역시 왕이 중국의 황제처럼 정도의 차이이지 실제로 재해로 인한 백성의 참상을 직접 목도할 수 없었다. 재해를 직접 보고 상소나 유민도로써 보고하는 역할은 명대의 사대부·관료처럼 조선에서는 지방에 파견된 관료 혹은 양반들이 감당했다. 그리고 구휼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은 왕에게 있었고, 왕의 결정권은 왕조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단, 명의 황제보다 조선의 왕은 더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고, 그 노력은 유민도를 병풍으로 제작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명·청대에 접어들면서 상업의 발달 등으로 민간 영역에서 구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은 務本抑末 정책으로 농업을 권장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국초부터 꾸준히 시행

참조).

63) 기근에 대한 대처, 즉 구휼방식에 대해 구준과 임희원 등은 구호 식량을 재분배하는 데 국가보다 상업경제가 효과적이며, 민간의 상업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 관료들은 기근에 대한 대처방식은 곡물 저장고 체제를 통해 정부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티모시 브룩, 앞의 책, 245면).

했다.⁶⁴⁾ 조선에서 시장의 발달이 중국·일본과 비교했을 때 발달 정도는 미비하며 그 시장의 영역조차 정부의 강한 통제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구휼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서 민간 영역의 구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직을 거치고 지방사회의 유력자인 品官들은 토지와 노비를 다량으로 소유하고, 개인적 진휼 행위인 私賑을 실시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유지했다.⁶⁵⁾ 이는 농업 생산력 유지인 동시에 마을 공동체 및 국가⁶⁶⁾에서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하는 부자에게 후원자-의존자 관계의 형성·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⁶⁷⁾ 그러나 점차 사전을 실시할 수 있는 富民이 지속된 기근과 재해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몰락하면서 중앙·지방관청에 의한 구휼의 역할이 증대되었다.⁶⁸⁾ 중앙집권을 지향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富民이 직접 지역사회에 사적으로 구휼을 베풀기보다, 부민이 자금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가 그 자금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원했을 것이다.⁶⁹⁾

64) 『太宗實錄』 20권, 태종 10년(1410년) 10월 29일 壬戌 3번째 기사 “傳에 말하기를, ‘다스림은 농사에 근본을 둔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장사하는 자가 많으면 市廛을 두어 억제한다.’ 하였습니다. 대저 농사라는 것은 몸이 땅에 짓고 밭에 흙을 묻히니, 그 수고로움이 심하고, 畝를 계산하여 徭役에 나가니, 그 괴로움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천한 물건으로 귀한 물건을 바꾸니, 그 이익이 배나 되고, 수고로운 일 대신에 편안한 일을 하니, 그 즐거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날로 적어지고 장사치는 날로 많아져서, 한 사람이 경작하여 열 사람이 먹으니, 나라의 창고가 어떻게 넉넉하며, 백성의 식량이 어떻게 풍족하겠습니까?”

65)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320면.

66) 국가의 경우 공명첩과 납속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부자들에게 구휼에 필요한 財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점차 부민조차 몰락하고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한 대기근을 만나면서 국가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67) 정승진, 「20세기 한국의 열린 촌락,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 『한국경제연구』 22,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10면.

68) 손병규, 앞의 책, 332쪽.

69) 牧民書인 臨官政要의 내용을 통해 조선과 중국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시대가 다르고 실제 시행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속해 있는 사회와 전혀 무관한 제안을 할 수 없다. 조선의 경우 구휼할 때 邑에 거주하는 사대부 혹은 품관 중에 청렴하고 근간한 자를 ‘賑恤都監’에 임명한다. 반면 중국의 경우 송대 주희의 말에 따르면 부유하고 넉넉한 가호를 권유하여 장부를 자세히 살피게 하거나 진휼미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구휼 때 개인(사대부)에게 직책을 맡겨 구휼을 집행하는 것과 민간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다를 뿐 반영하고 있다(안정복 저, 원재린 역주, 『임관정요』, 혜안, 2012, 104~105·363면).

게다가 국가 전체에 식량이 부족해지는 대기근은 사적 영역보다 중앙정부의 재분배에 더욱 의존하게끔 했다. 따라서 조선은 점점 민간의 영역에서 정부의 재분배로 구휼의 중심이 이동했다. 이러한 조선의 변화는 중국이 청대와 청대 말기로 가면서 민간 영역의 구휼 비중이 커지는 변화와 달리 여전히 왕이 구휼을 책임지며 구휼정책을 시행하는 구조를 왕조 말기까지 유지하게 된 것이다.

2. 민간-시장 주도의 구휼

중국의 명대와 조선 시기에 유민도를 황제·왕에게 진상하여 구휼 대책을 세운 구조와 달리 중국의 청대와 일본의 에도 시기에는 유민도를 민간 영역에서 작성하고 유민도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더 강해졌다. 청대와 일본의 에도 시기는 앞에서 명과 조선이 그러했듯이 유민도를 활용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구조 및 양상이 유사하지만, 유사함 속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청대에는 정부가 상평창을 통해 기근·재해 등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했지만, 기근·재해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에 대한 구휼의 주체를 보면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었다.⁷⁰⁾ 물론 청으로 왕조가 변화했다고 해서 명대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청대 특히 18세기의 청대 자연재해 극복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P.E. 빌의 『18세기 중국의 관료제도와 자연재해』를 보면 많은 모순과 결함에 불과하고, 대체로 18세기까지 자연재해에 대한 청 정부의 대처는 원활한 편이었다.⁷¹⁾ 즉 명대와 비슷하게 청대 역시 상당 기간 정부 중심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했던 것으로 보인다.⁷²⁾ 청대가 명대와 큰 차이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청대 대표적인 유민도인 『江南鐵淚圖』가 그려졌을 당시를 살펴보면 善堂이 연고자 없는 시체를 매장해주고 홍수나 재해 때 죽을 썬서 나누어 주는 활동을 했다. 이

70) 청대 후기인 19세기 후반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긴장, 중앙 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사적인 개입이 등장하게 되었다. 동일하지 않지만, 기근 시기 신사층들의 개입은 명대 여러 저작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행동 양식을 답습했다고 평가한다(P.E. 빌 저, 앞의 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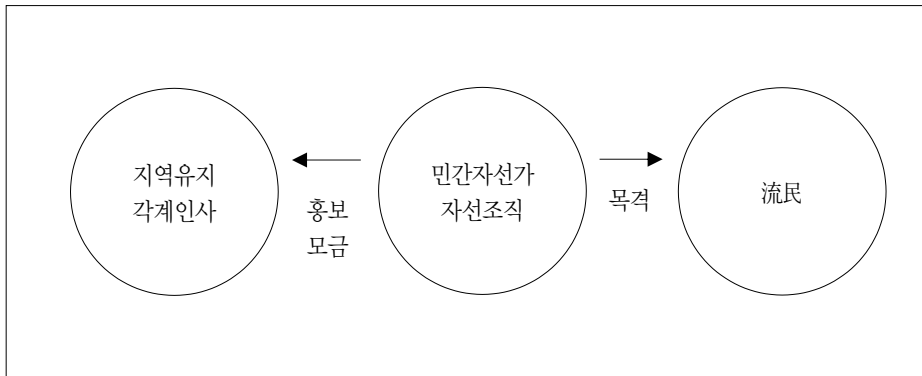
71) P.E. 빌 저, 앞의 책 참조.

72) 18세기에 常平倉, 社倉 등 국가 倉儲 제도가 비교적 원활히 작동했지만, 19세기는 국가재정의 악화로 국가 주도 진휼 사업의 규모와 효율성이 전 시기보다 많이 저하되었다(한승현, 「19세기 초의 賑賑江蘇省 太倉州·鎮洋縣 사례를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45, 명청사학회, 2016, 330면).

조직은 지방관청에 등록되었지만 비정부조직이었고, 지방의 상인·도시의 자산가들이 이 조직에 出資하였다. 선당의 목표는 빈곤층의 불완전 고용자들을 일정 정도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⁷³⁾

이때 이뤄진 구휼을 살펴보면 정부가 재해에 대해 지출하고 있지만 전 시기에 비해 지역 유력층들이 구휼 자금 가운데 상당한 분량을 제공하고 운영 면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⁷⁴⁾ 그렇지만 태평천국의 난 같이 전국적이며 방대한 피해를 가져온 비상상황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대처를 기대하는 모습을 유민도 속에 담았다.

〈표 3〉 중국의 청대·일본의 에도 시기의 유민도와 사회구조



한편 또다른 청대의 특징은 시장의 발달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청 왕조는 개인적 이동을 금지했던 법령 폐지, 상업적 계약과 재산권 보호, 상품유통의 제약인 독점 제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의 능률을 증진시키고자 했다.⁷⁵⁾ 이러한 상업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관료나 신사들이 천하게 여겼던 상업으로 투신을 꺼리지 않게 되었다.⁷⁶⁾ 최근 다수의 연구자가 청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된 나라로 평가할 정도

73)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역, 『하버드 중국사 청-중국 최후의 제국』, 너머박스, 2014, 213~214면.

74) 한승현, 앞의 논문, 332면.

75) 윌리엄 T. 로 저, 앞의 책, 223면.

76) 신사들의 상업으로의 투신으로 인해 옹정제부터 紳商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오금성, 「신사」,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356~363면 참조).

로 청에서 상업과 상인의 영향력은 막대했다. 청의 정부는 상업을 밀어주면서 상인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다. 상인들과 지역의 紳士들은 생존의 위기 상황에서 구휼 활동을 감당했지만, 국가적 위기 혹은 태평천국의 난처럼 지역사회 전체가 도탄에 빠질 정도의 위기는 이전과 같이 정부의 ‘재분배’에 의한 구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일본 에도 시기는 유민도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자선조직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컸다고 볼 수 있다.⁷⁷⁾ 일본은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전국이 쇼군·다이묘·하타모토 각자가 다스리는 영지로 나뉘어 있었다. 따라서 기근과 자연재해로 유민이 발생했을 때 쇼군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 혹은 마을 유지들에게 유민을 안정시킬 역할을 부여했다.

일본의 구휼제도는 막부 차원의 정책과 대책들이 있었지만⁷⁸⁾, 대체로 민간 차원에서 자선조직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고 자선조직의 구휼 활동비는 지방 유지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거나 법으로 지원하게끔 했다. 즉 막부의 수장인 쇼군은 기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구휼의 실질적인 운영과 재정 부담은 민간에서 행하기를 원했다. 막부는 江戸에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축한 쌀을 풀어 餓死의 위기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제도인 七分積金制度의 기금을 에도의 町人, 지주들이 적금하도록 했다. 七分積金制度 외에도 막부는 아사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行旅病者·行旅死亡者 등을 官에 신고하고 구휼을 베푸는 주체 역시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책임지도록 법을 제정했다.⁷⁹⁾

막부가 민간에게 구휼을 책임지게끔 하는 법을 제정해서 구휼이 행해진 측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간에서 자선조직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荒歲流民救恤圖』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법이 강제했다기보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77) 유민도 그림들은 前橋積善會의 자금 마련을 위해 메이지 32년인 1899년에 도화 11장조로 출판한 것으로 알려졌다(菊池勇夫, 앞의 논문 참조).

78)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서 실시한 구휼제도로 중병에 걸리거나 餓死의 위기인 사람들에게 扶持米를 지급해주는 米錢給與制度, 구제에 빠진 백성이 있는지 혹은 구제받지 않아도 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신고하게 하는 巡察竝申告制度, 전염병의 치료법을 알려주거나 약을 나눠주고 치료하는 救療制度 등이 있었다. 도쿠가와 막부에서 행해진 구휼제도는 天保 기근 이전에 享保 18년(1733년)과 天明 4년(1784년)에 겪은 대기근을 통해 점차 시행되고 정비되었다(桑原洋子, 「近代日本の 社會福祉制度」, 『일본연구』 9,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1991, 34~35면).

79) 桑原洋子, 앞의 책 참조.

자선조직이 구휼을 행했다. 그리고 키토 히로시에 따르면 도시에서 하층민이 증가하면서 도시문제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의외로 사망률이 낮은 것은 영주나 대상인 등에 의한 공적·사적인 구휼과 부조 덕분에 보고 있다.⁸⁰⁾

중국처럼 일본도 도쿠가와 막부 시기에 대상인들이 등장할 정도로 상업이 크게 발달해 상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급상승했으며 구휼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일본의 유민도가 중국의 유민도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중앙정부나 쇼군의 개입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차이의 근본적 원인이 일본이 중국보다 지방분권적이면서 구휼의 최종 책임과 비중이 민간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이상으로 한·중·일의 유민도와 구휼에 대해 살펴보면 각 시기와 국가의 사회·경제의 특징까지 알아봤다. 물론 같은 국가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유민도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다 알 수 없지만, 非常時에 그려지는 유민도를 통해 당대 재해 구휼의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고의 목적은 어느 시기와 국가의 구휼이 더 많은 백성을 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었는지, 혹은 어느 유민도가 백성들의 참상을 구제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이끌었는지 우열을 가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

사회·국가 전체에 전쟁·기근·재해 등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존에 절대적인 위협이 될 때 각각의 지역사회와 국가는 사회·경제구조 상황에 맞게 위기에 대처했다. 유민도를 둘러싼 구휼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더라도 백성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지역·사회·국가까지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동아시아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명과 조선은 황제와 왕 같은 군주가 구휼의 책임을 맡음으로써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고, 반면 청과 지방분권적 국가인 일본은 악화된 정부재정과 막부를 대신하여

80) 키토 히로시 저, 앞의 책, 172면.

민간 차원에서 구휼을 이전보다 더 많이 맡음으로써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호혜, 재분배, 시장(교환) 경제 중 한 요소가 쇠퇴할 때 주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재분배를 통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호혜 혹은 시장(교환)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가와 민간, 혹은 재분배와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체로 큰 기근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 재정을 모으고 대처하는 부분이 많았고, 재분배와 시장 역시 함께 작동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만 시대와 국가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은 국가와 민간, 재분배와 시장 중에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컸는지를 보고자 함이었다.

본고에서 다룬 ‘유민도’는 과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재해의 풍경을 상상할 수 있고, 재해 극복에 관한 여러 측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유민도를 제작한 관료와 지식인, 지역사회·국가에 대한 언급과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유민도 속에 감춰진 민들의 실제 생활과 재해에 대한 반응 등에 관한 연구 등이 나오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남기 역, 『국역 열성어제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8
- 김덕진,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푸른역사, 2008
- 디터 쿤 저, 육정임 역, 『하버드 중국사 송_유교 원칙의 시대』, 너머북스, 2015
-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1
- 溝口雄三·丸山松幸·池田知久 편저, 김석근·김용천·박규태 역, 『中國思想文化事典』, 민족문화문고, 2003
- 배항섭 엮음,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 너머북스, 2017
-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 손병규·송양섭, 『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 안정복 저, 원재린 역주, 『임관정요』, 해안, 2012
- 야스마루 요시오 저, 이희복 역, 『일본의 근대화와 민중사상』, 논형, 2021
- 오금성 외 저,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 와카모리 미도리 저, 김영주 역, 『지금 다시, 칼 폴라니』, 생각의 힘, 2017
-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역, 『하버드 중국사 청 - 중국 최후의 제국』, 너머북스, 2014
- 키토 히로시 저, 최혜주·손병규 역, 『인구로 읽는 일본사』, 어문학사, 2009
- 티모시 브룩 저, 조영현 역, 『하버드중국사 元·明-근경에 빠진 제국』, 너머북스, 2014
- P.E. 빌 저, 정철웅 역, 『18세기 중국의 관료제도와 자연재해』, 민음사, 1995
- 寄雲山人 撰, 『江南鐵淚圖』, 廣文書局, 1974
- 桑原洋子, 『前近代における社会福祉法制』, 信山社, 2014
- 고연희, 「조선 왕실 繪畵의 ‘公共性」, 『민족문화연구』 9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
- 김문기, 「17세기 江南의 災害와 救荒論」, 『역사와 경계』 73, 부산경남사학회, 2009
- _____, 「明末清初の 荒政과 王朝交替」, 『중국사연구』 89, 중국사학회, 2014
- 김영옥, 「歷代 帝王의 故事를 그린 조선후기 왕실 鑑戒畵」, 『미술사학』,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4
- 이석현, 「중국의 재해, 재난 연구와 ‘재난인문학」, 『인문학연구』 5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 정승진, 「20세기 한국의 열린 촌락,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 『한국경제연구』 22,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 최원실, 「중국의 流民圖 전통과 近代期 王一亭(1867-1938)의 流民圖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9

한승현, 「19세기 초의 兗賑-江蘇省 太倉州·鎮洋縣 사례를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45, 명청사학회, 2016

刘如仲, 「从《饥民图说》看河南水灾」, 『史学月刊』 4, 1982

王一村, 「明代“流民圖”考」, 『美術』, 2018

李冀宁, 「宋, 明, 清至民国时期“流民图”及其历史价值」, 『古今农业』, 2020

菊池勇夫, 「荒歲流民救恤圖」, 『子防時報』 236, 2009

桑原洋子, 「近代日本の 社會福祉制度」, 『일본연구』 9,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1991

Disaster Response through Yumindo of Three East Asian Countries

Yoon, Won-hee

Yumindo(流民圖) was created to deal with severe survival crises such as disasters, famines, and wars common to all three East Asian countries. The means to overcome the survival crisis i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was Yumindo. Since Yumindo is not aesthetically beautiful, it has not been noticed for a long time. However, it is a remarkable picture because you can observe the situation of disaster response and relief with Yumindo. Yumindo functioned for two main purposes. First, it was promoted as a means of reporting the misery of the vagrant to the monarch and letting the monarch reflect on himself like the Gamgyehwa(paintings for moral instruction). The second purpose was to advertise to the people to inform the plight of the disaster, and sell and raise funds to enable relief.

Yumindo began with the Song dynasty, and Yumindo was produced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Joseon and the Edo period in Japan. Ming - Joseon and Qing - Japan edo can be broadly classified based on their commonalities, but they have differences. First, scholars and bureaucrats created misery of the vagrant in Ming and Korea as Yumindo, and the route to advance to the emperor and the king is similar, but the monarchs of each country had an attitude toward Yumindo and the economy and society. There was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tructure. On the other hand, in Qing and Japan edo, Yumindo was created to promote the misery of the vagrant to “private citizens” instead of government and encourage people in various fields to provide relief funds. It is a common point. although the Qing Yumindo still reflects the desir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even in the changing territory of the private sector, it seems that only the private sector exists in Japan. there is a difference. The difference in the Yumindo proves that response to disasters differs depending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era and country.

동아시아 삼국의 流民圖를 통한 재해 대응

Key Words : yumindo(流民圖), disaster, relief, dogan(圖諫), redistribution, associated charity

